

## Hana Market Weekly

---

#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

자금시장영업부

2023. 7. 24

# 주간 달러/원 동향(7/17~7/21)및 전망



##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월러 연준 이사의 매파적 발언과 소비심리 개선 등에 추가 긴축 경계감 강화되며 환율 상승 출발했으나 역외 달러 매도 증가 영향 등에 상승폭 다소 제한. 이어 열린 미 재무장관 발언에 따른 연착륙 기대감 강화와 중국 인민은행 환율 고시에 따른 위안화 강세 반영하며 장중 1,250원대까지 하락
- 중반 들어, 미 소매판매, 주택시장심리지수 등 경제지표 호조에 의한 추가 금리 인상 지속 가능성과 달러지수 반등 영향 반영하며 상승 전환
- 후반, 주요국 디스인플레이션 조짐에 연준과의 통화정책 격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달러 영향 속 상승세 지속. 이어 주 후반, 미 실업수당 청구건수 감소에 따른 추가 긴축 경계심리와 달러 강세 지속되며 1,280원대 상승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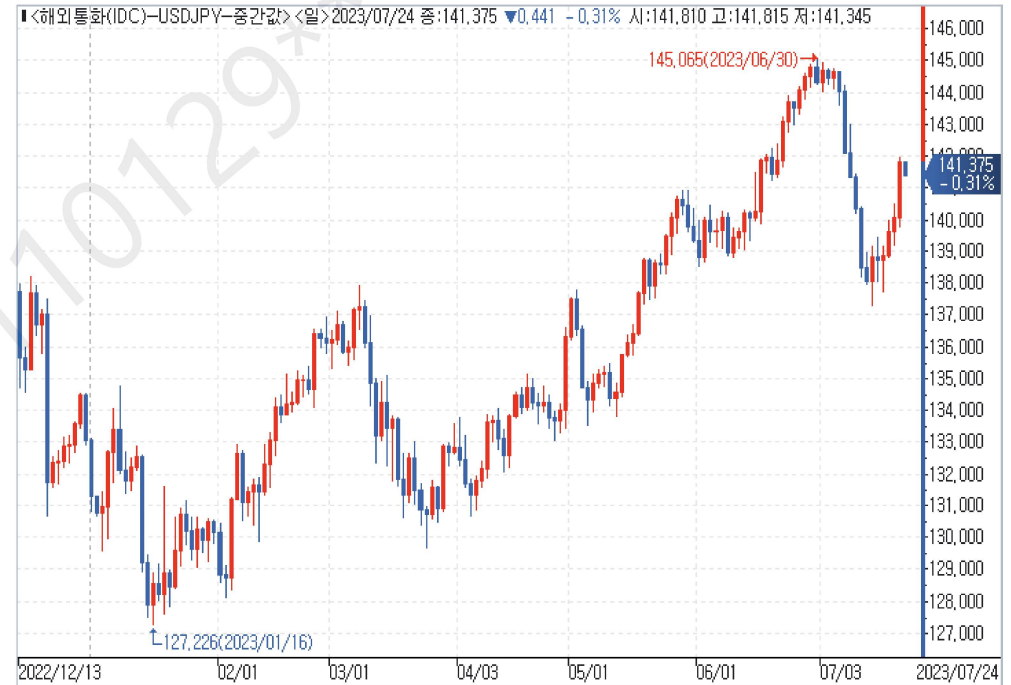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270.0	1,285.4	1,257.3	1,283.4	+13.4

## 달러/원 전망

- 7월 FOMC 추가 긴축 가능성이 그간 미국의 소비와 고용지표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측면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달러인덱스 상승력을 뒷받침 할 것으로 예상. 문제는 이미 시장에 반영된 7월 결과보다 이후 재긴축 가능성으로 연방기금 금리 선물시장이 금번 회의 이후 인상사이클을 끝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에도 연준이 데이터에 근거해 추가 1회 긴축 가능성을 열어 놓을 수 있다는 점이 환율 1,290원대 상향에 동인으로 작용할 전망
- 여기에 일본 통화정책 당국이 YCC 부작용을 긴급히 다뤄야 할 필요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 점이 달러 강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예상거래범위
1,275원 ~ 1,295원

# 엔·유로화 동향 (7/17~7/21)



## 유로화 동향

- 주초, 인플레이션 대응 위한 ECB의 매파 성향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달러 대비 유로화 강세 흐름 지속되며 출발. 이어 여전히 견조한 미 소비 여건 확인 후 달러 지수 반등한 상황에서 클래스 노트 ECB 집행위원이 비둘기적 발언 강화한 영향으로 달러 대비 약세 전환
- 중반 들어, 유로존 6월 CPI 전년대비 5.5%로 상승폭 크게 둔화됨에 따라 ECB도 긴축 스탠스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약세 지속
- 후반 들어, 미 고용시장 타이트한 상황이 연준 매파 기조 자극할 것이란 우려 속 큰 폭의 유로 약세 시현. 이어 주 후반,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유로화 강세 모멘텀 약화된 가운데 약세 흐름 지속되며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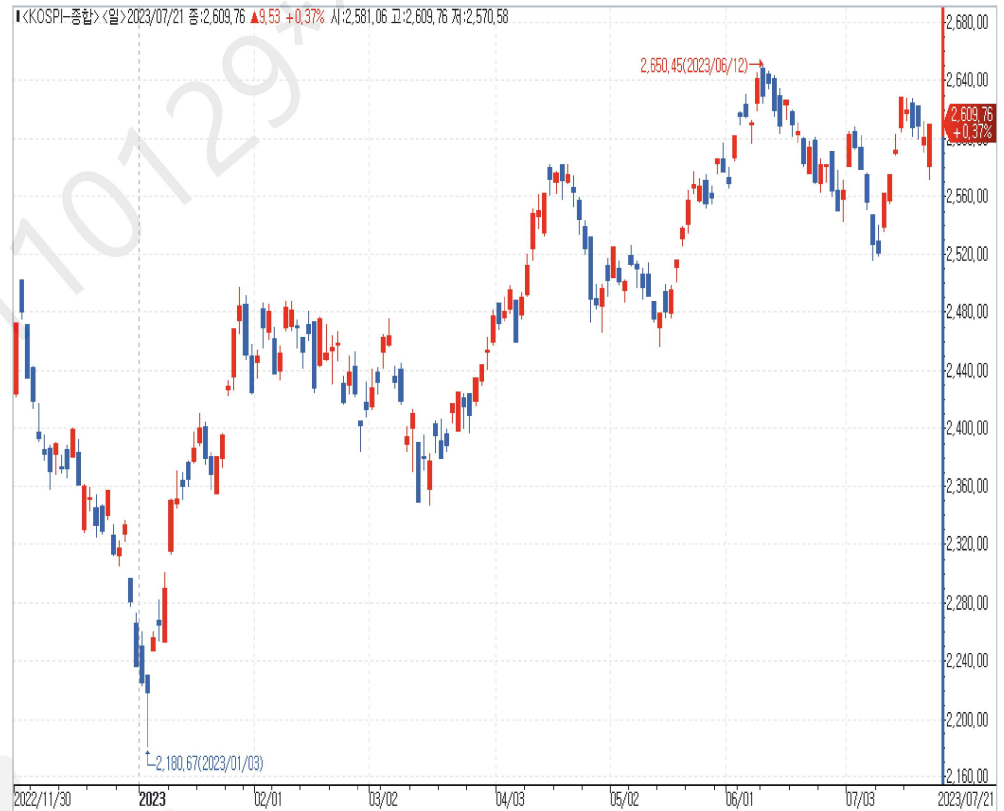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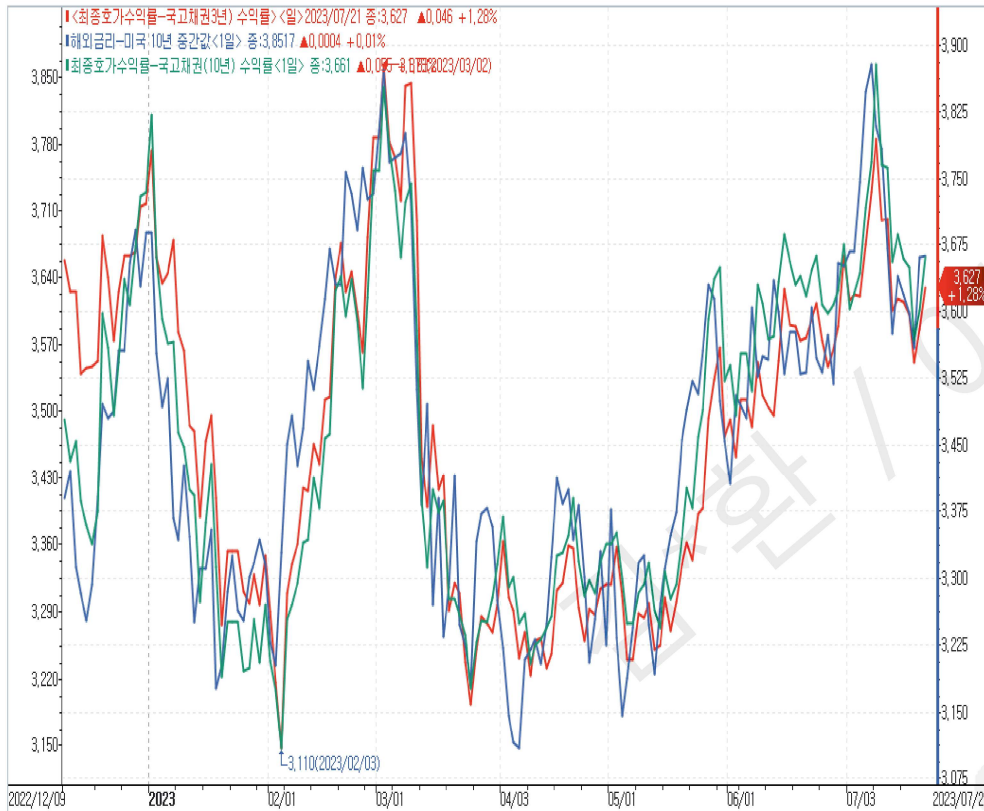
## 엔화 동향

- 주초, BOJ의 완화적 정책 수정에 대한 기대감에 엔화 약세 다소 제한되며 소폭 강세 출발. 이어 연속 증가한 6월 소매판매 데이터에 따른 달러 강세 흐름 반영하며 소폭 약세 전환
- 중반 들어, BOJ 총재의 비둘기적 발언에 7월 회의에서의 YCC 정책 변경 기대감 낮아진 영향으로 엔화 약세 흐름 지속
- 후반 들어, 미 실업수당 청구건수 감소에 7월 FOMC 추가 금리인상 기정사실화된 측면이 BOJ의 정책 기조와 대조되며 달러 대비 엔화 약세 지속. 이어 주 후반, 일본 6월 근원 CPI가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BOJ의 완화적 스탠스를 멈출 정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큰 폭의 약세 시현하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1229	1.1276	1.1109	1.1127	-0.0102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8.8	141.9	137.7	141.8	+3.0

#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7/17~7/21)



##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미 미시건대 기대인플레이션 상승과 연준위원의 매파적 발언 등에도 중국 2분기 성장 지표가 시장 예상을 하회한 결과에 따라 소폭 하락 흐름 출발. 이어 특이 재로 부채 속에 수급상 외국인 국채선물 매수 강화에 상승 전환
- 중반 들어, 미국 소매판매 지표의 호조에 따른 긴축 우려감이 있었음에도 장 후반 영국 물가지표가 예상을 밑돌음에 따른 외국인 국채선물 매수 확대로 국고채 금리 급락세 시현
- 후반 들어, 급격한 금리 하락에 따른 되돌림 영향 속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채선물 매도 등으로 상승 전환 후, 주 후반, 전일의 미 실업보험 청구건수가 시장 예상을 하회함에 따른 물가 자극 우려와 연준 긴축 우려 등을 반영하며 상승 전환하며 마감

##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연준의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에도 FOMC 관망세가 짙어지며 최근 지수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니즈 및 중국 경제지표 부진 등이 겹치며 하락 출발. 이어 최근 코스피 2600선 상향 추세에 따른 기관과 외국인의 차익 실현 확대 등으로 하락 추세 이어진 형국
- 중반 들어, 미국 경제에 대한 연착륙 기대 속에 미국 주요 금융기업들의 실적 호조 등에 따른 뉴욕금융시장 영향 등으로 소폭 상승 전환
- 후반 들어, 2분기 미국 기업 실적의 속속 발표 속 차익 실현 등에 따른 나스닥 시장 하락 영향 등이 반영되며 재차 하락 전환 후, 주 후반, 미 기술기업들의 실적 부진에도 중국 내수 확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되며 상승 흐름 마감